

“군민 행복·지역 발전, 새로운 도약 다질 것”

올해 새해설계

구북구 화순군수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목표 실현 인구·관광·농업·바이오·백신 등 6대 핵심 전략 제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며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 또한 불안한 요소이지만,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열정은 화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속도를 높여 ‘화순 중

흥의 새역사’를 예정대로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군수는 올해를 화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화순형 인구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대한민국



국 표준으로 자리잡은 만원 임대주

택 사업과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생 기본수당 지급 등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및 입학 축하금 지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둘째,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한다. 화순천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봄꽃 축제와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고, 야간 경관 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해 생활 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돈버는 부자 농촌을 실현한다. 한국난산

업화단지 조성하고 농산물 복합유통센터 및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농업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화순팍의 수도권 진출을 통해 매출 50억원을 목표로 한다. 넷째,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백신 산업을 육성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생물의약품 2·3산업단지 조기 착공,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섯째,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 민생 경제를 회복한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섯째,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며 복지를 강화한다. 문화 주치의제와 마을 주치의제를 연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문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 군수는 끝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화순군이 선도한 혁신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군정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시, 작년 출생아 수 전남 ‘최다’

전년비 2.9% ↑ ...6년 연속 전남 1위 기록

순천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천452명을 기록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달성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6년 연속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명이 증가(2.9% 증가)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출범부터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주요 정책으로는 ▲출생수당 지원 ▲돌봄센터 이용 아동 방학중 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연령별 보육료 50%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2천만원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확대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개원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인구는 2024년 말 27만6천329명이며, 이 중 청년인구 비율은 33.7%로 전남평균 28.3%보다 많은 젊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여수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손 씻기·마스크 쓰기 등 생활화

여수시는 13일 “독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설 연휴 기간 집단유행 가능성이 예측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3주 전과 대비했을 때 독감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2시간마다 실내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이 많이 모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불

필요한 만남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열과 기침 등의 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 받기를 당부한다”며 “시에서도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군, 노후 식당 테이블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24일까지 방문 신청...1세트당 최대 40만원

곡성군은 13일 “오는 24일까지 식품 위생업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천800만원, 사업량은 테이블 100세트다. 1세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곡성군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 된 업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주,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 환경을 조성해 곡성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곡성외식업지부(061-363-3948) 또는 위생팀(061-360-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영필 기자



곡성군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2025년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교체 전 좌식 테이블(왼쪽)과 교체 후 입식 테이블의 모습. <곡성군 제공>

광양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전년비 벼 재배면적 13.5% ↓ 목표

광양시는 13일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광양시의 올해 감축 목표는 1354ha, 2024년 벼 재배면적 1천3ha의 13.5% 수준이다.

1월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별 조정 면적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조정통지서를 받은 농업인은 부과된 벼 재배면적의 조정,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공공비

축미 매입량 배정 우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양시는 향후 전라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벼 재배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이 최근 군청 민영정실에서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협의 위원들이 힘찬 출발을 알리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

31명 위촉...2년간 청년문제 정책 발굴 역할

담양군은 “최근 군청 민영정실에서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임순미 참여소통실장, 최은정 홍보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이 위촉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2년간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전달 ▲청년 문제의 발굴과 조사, 개선 방안 모색 ▲청년 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청년단체와의 협력,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청년정책협의

체가 지역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의 발굴로 청년이 행복한 담양,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담양군은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담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서부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맞춤형 생애 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공공키즈놀이터’ 가오픈...내달 정식 운영

36개월 이상·보호자 동반 입장...이용료 무료

구례군은 13일 “14일부터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1층(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가소통실에서 공공키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키즈놀이터는 아동이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례군은 2025년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 2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당 2시간 운영한다.



구례군이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공공키즈놀이터 내부 모습. <구례군 제공>